

건강보험 부채 5년 뒤 133% 전망

급격한 고령화·문재인케어 영향

“재무건전성 해치는 수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5년 뒤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2일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의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32.9%까지 오른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무 전망에 대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금 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반영한 부채다.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공단의 자산은 올해 30조9101억원에서 2023년 29조3466억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부채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13조1668억원에서 2023년 16조744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이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 2021년에는 10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적립금을 사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가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설명하며 핵심인 적립금 10조원 대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조원 정도는 항상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악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도까지는 정책적 변수에 따른 지출 등이 계획된 범위 내에 있다”며 “충당부채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통상 부채의 84%는 충당부채로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하다”며 “충당부채로 잡힌 금액이 다음 연도에 모두 지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부 건강보험 관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공간에만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2017년에는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사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집으로 2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주최 도중 학생과 교직원 등 10여 명이 가스 냄새를 맡고 쓰러지거나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교실에서 대기하던 학생들이 오후 3시쯤 학교의 귀가조치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인권위, “학교 영양사·상담사, 교사와 임금격차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전문상담사의 임금에 대해 일괄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들과 교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및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관련해 교육청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들 영양사·전문상담사와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간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도 마련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전문상담사들은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교사들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하기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양사의 연봉이 영양교사 임급의 53.8%~78.7% 수준이

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 역시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내 부적을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이라는 공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급의 약 59%~85% 수준인 것은 지적이 필요하다고 봤다.

완도해경,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가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2일부터 1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후 12일부터 본격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종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상안전법 제41조와 42조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룸 페인트 작업 중 시너 폭발...1명 화상

2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원룸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해 A씨(48)가 온 몸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원룸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으며 원룸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상에서 50대男 흥기에 질려...경찰 수사

경기 부천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흥기에 질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쯤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의 한 빌딩 인근 노상에서 한 남성이 옆구리에 피를 흘린채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56)가 노상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왼쪽 옆구리쪽에는 칼에 한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는데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경찰 출동당시 A씨가 만취상태였고, 그가 메고 있는 가방에는 혈흔이 묻은 흥기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만취한 A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흥기에 질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를 확인 중이고, A씨가 움직인 동선도 확인하고 있다”며 “A씨가 병원에 있어 아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A씨의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밀쳐 숨지게한 20대 아들 체포

경기 오정경찰서는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 A씨(25)를 붙잡아 조사가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 B씨(58)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아버지 B씨는 “아들과 다투고 있다”며 “현장으로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 공장에 찾아가 어머니와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아버지를 밀었는데,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